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18주일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부부는 먹고살기 위해서 각각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자는 힘든 노동 일을 했고 여자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몫 좋은 곳에 식료품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부부는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 년 열두 달 쉬는 날도 없고, 어디 놀러 가는 날도 없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이익이 두 배로 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신자 이견만 아불싸... 주일을 쉼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니 돈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훨씬 좋고 큰 곳에서 가게를 이전하여 다시 열었습니다. 부부는 더욱 많은 돈을 벌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장사가 잘됐는데 이사를 간 후부터는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망하게 되고 그 큰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만 되었고 예전처럼 다시 먹고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실화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의 일입니다. 아무리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주일만은 지켰어야 하는데...

오늘 독서인 코헬렛의 저자는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코헬렛의 저자는 지혜로운 자였고 오늘날 말하는 재벌과 같이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모든 것은 허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가? 결국은 죽고 말 인생, 온갖 영화를 누려 본들 죽을 인생이기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와 향락을 추구하며 명예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은 세상 것들로 충족되지 못하고 하느님을 추구할 때 행복하게 된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가 자신이 오늘 죽게 될 운명인지도 모르고 실컷 쉬고 먹고 즐길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그의 생명이 다하리라는 생각은 염두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유함이 제공하는 향락만이 보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의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그렇다면, 부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열 안드레아 신부 | 나자렛 예수 수녀회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코헬 1,2; 2,21-23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 서	콜로 3,1-5,9-11
복 음	루카 12,13-21

신임 교리교사 연수

2022년 교구 미등록 교사 및 신임 교리교사를 위한 연수가 5월 7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총 21명의 교리교사가 참석하여 전례와 성사, 성경, 교리교안 작성법 등을 배우고 공부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교리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교리교사증을 수여받아, 마산교구 교리교사로 등록되었다. 신임 교사들은 파견 미사를 통해 각 본당으로 파견되었다.



또래사도 양성 연수



또래사도 양성 연수가 1과정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과정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2022년 중고등부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 임원들을 위한 이번 연수에는 13개 본당 21명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임영준 베드로 강사의 리더십 강의를 통해 학생 회장단으로서 학생회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주제로 성경을 읽고 나눔과 발표를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본당 활성화 방안'이라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 10주년 기념행사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협의회장: 황인균 요셉 신부) 10주년 기념행사가 7월 12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2012년 7월 5일 창립 후 현재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카리타스 정신에 따라 7개 분과 55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조정혜 로사 관장(로렐의집)과 가톨릭여성회관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여인석 베드로 신부(교구 사목국장)의 시노달리타스 강의와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2022년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에서는 불자들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서는 비록 각자 다른 길을 통해서지만, 당신들을 따르는 이들을 초월적 가치로 이끌어 주십니다…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적 전통 안에 숨은 보물들을 드러내어 인류가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황청은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초월적 가치를 발견한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대하여 전통적인 영적 유산들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상처받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적 치유의 길을 열어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인들 간의 대화와 연대는 예수님의 본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자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발전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공의회 이전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의 나라와 동일하며, 구원의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믿었으며 다른 종교에 대해 우월적인 태도를 지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배타주의적(exclusive)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 선포와 선교를 통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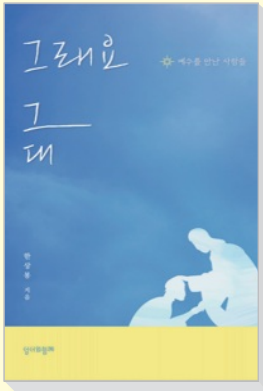
한편, 16~17세기 신대륙 발견과 더불어 낯선 문화와 타 종교의 접촉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와의 만남을 통해 세련된 아시아 문화와 종교에 서구인들이 매료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 문화와 신학적 언어가 타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타지역의 문화와 토착종교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방세계 안에서도 과학의 발달과 실존주의, 실용주의, 이성주의적 사고가 대두되면서 탈그리스도교적인 동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이를 배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변화에 따라 교회의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공의회는 하느님 중심의 구원관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다. 첫째, 공의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포괄주의적(inclusive) 입장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 접근을 한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교회 헌장, 16항) 교회 헌장의 이 가르침은 명시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양심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칼 라너(Karl Rahner)는 이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공의회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구원 가능성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명확히 표현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둘째, 공의회는 다른 종교 안에 하느님에 대한 진리와 선, 사랑 등의 신앙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가톨릭은 이를 존중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힌두교, 불교 등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2항) 가톨릭교회는 타 종교의 윤리와 종교적 삶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나아가 다른 종교도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성령의 작용은 교회 밖에서도 ‘말씀의 씨앗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의회는 가톨릭교회가 다른 종교와 대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회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는 한편, 다른 종교인들의 정신적 도덕적 자산과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2항)

이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른 종교의 영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다른 종교의 영적 가치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므로, 결국 종교의 진실한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던 교회가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토대로 하여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그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가톨릭교회가 그 명칭처럼 보편성을 향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표시일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요 그대” 하고
다독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요 그대

- 출판: 성서와함께
- 지은이: 한상봉

이 장편소설은 ‘요아스의 아들, 요셉’부터 ‘마리아 막달레나’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인물에 대한 기존 지식에, 저자의 상상력이 더해진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독특하고도 새로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먼저 인물들의 삶의 궤적과 심리를 개연성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인물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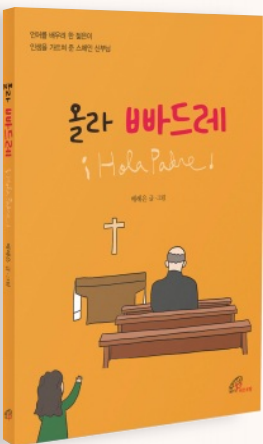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

- 출판: 김영사
- 지은이: 이충렬

탄생 200주년,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의
삶과 길을 충실히 복원한 첫 정보 전기

1846년 25세의 나이로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기까지, 김대건 신부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룬 이 전기는, 해곡최순우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대표 전기 작가가 한국천주교회 연구기관인 (재)한국교회사연구소의 자료제공과 감수를 받아서 펴내는 공식적인 김대건 정보 전기다. 방대하고 치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확실했던 5년 반 동안의 마카오 신학교 생활과 어린 시절은 물론, 여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했다.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세계사적 역동 속에서 온갖 박해를 이겨내고 꾀꾀하게 피어난 한국천주교회의 다채로운 신앙 여정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어, 한국가톨릭 신앙의 뿌리와 본질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라 빠드레

젊은이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함께 가꾼 위대한 선물을 나누다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젊은이가 지혜와 역사의 기억을 저수지처럼 담고 있는 스페인 원로 신부를 만나 인생을 배운 행복한 스페인어 수업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젊은이와 노인의 유대가 이뤄낸 따뜻한 소통과 꿈이 풍부한 선물을 건네준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배혜은



텔레마코스

참 나를 발견하며 얻는 자유,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행복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성경 인물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성찰하도록 초대한다. 인간을 향한 긍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며 자유로워지도록 인도한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 옮긴이: 김성봉 신부



아기천사의 기도

박성임 클라라 시조시인/ 가톨릭문인회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 주어야 한다.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자기가 희망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학원에만 의존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내가 선택해야 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자고 학교 가고 학원에 가고 인터넷 학습으로 과제를 하고, 꿈꿀 수 있는 정서적 여유가 없다. 주위로부터 모두 빼앗겨 내가 걸어가야 할 목적의식조차도 갖지 못한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장래의 꿈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에 70% 이상이 고층 건물주, 큰 회사 사장, 컴퓨터회사 대표, 기업사 대표, 복권 당첨 등등 모두가 부를 지향하는 물질 우선 순위를 지향하고 있었다.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사고방식, 편하게 살고 편하게 놀고먹고 맘껏 즐기자, 그저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의 풍요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무 결핍증, 무 목적적인 생활방식으로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현실이다. 나의 길을, 꿈을 선택해 보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나는 요즘 손녀 손자들을 돌보면서 너무도 신기하고 예상치 못하는 의외의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된다. 서너 살만 되어도 어느 쪽이 자기편인지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빠르게 인지하고 때 순간의 선택에 아주 영리하게 대응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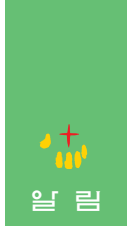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와락 품에 안긴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반겨 맞아줄까? 감동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런 소중한 하윤이 하빈이에게 가장 값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아침 저녁기도, 특히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자기 전에 반성과 감사기도를 하게 하였다. 나로서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윤이와 하빈이는 5살, 4살 연년생이다.

하윤이의 기도는 “나는요 으음, 엄마처럼 예쁘게 자라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처럼 예쁜 구두를 갖고 싶어요” 그러고는 연이어 아기 예수님 목소리로 “응 그래”라고 한다. “또요. 나는 키보드와 자전기도 갖고 싶어요” “응 그래” 자문자답의 기도양식이다.

하빈이도 “나도요 누나처럼 똑같은 것 사 주세요. 꼭요, 꼭이요?”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약속을 한다. 하윤이가 “응 그래 알았다” 하고는 손가락을 걸어준다. 하윤이는 순발력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다.

이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 참 놀라운 발상이다. 예수님은 천사 같은 아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 또한 확신하게 되었다. 이같이 순수한 기도를 과연 나는 몇 번이나 했을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기들의 기도는 나날이 자라나고 나도 함께 자란다.





기억할 선종 사제

장병화(요셉) 주교
1990년 8월 3일



기억할 선종 사제

박주선(안토니오) 신부
1995년 8월 3일

故 조규성 베드로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시: 8월 1일(월) 11:00

장소: 고성성당

주례: 총대리 최봉원(야고보) 신부

강론: 최재상(마티아) 신부

참석 범위: 교구청 사제단, 유가족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참석 범위를 제한합니다.

8월 초 폭염으로 고성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부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신부님을 위해 추모미사 1대를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본당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하계연수

일시: 8월 6일(토)~7일(주일) 1박 2일

장소: 창녕 온누리 청소년 수련원

여름학교-중고등부

일시: 8월 6일(토)~7일(주일) 1박 2일

장소: 창녕 온누리 청소년 수련원

청년성서 49차 탈출기연수 안내

일시: 8월 18일(목) 19:00~21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탈출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한 청년
(선착순 15명 마감)

접수: 8월 4일(목)까지, 청소년국 홈페이지
(청년부 연수 신청)로 신청

문의: 대표봉사자 010·2961·9918

교구 성경 공부 개강

일시: 8월 3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과목: 마태오복음서

대상: 성경에 맞들이고 싶은 분

신청: 당일 접수(수강, 교재비)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교구 성경사목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8월 19일(금)까지(면담 후 봉사자 활동)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233차 남성 푸르실로

일시: 8월 4일(목)~7일(주일) 3박 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8월 수어미사는 없습니다.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8월 기도모임은 없습니다.

문의: 회장 010·3903·8234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8월 7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창원 젊음의 집	심재현 치릴로 신부 010·2042·8353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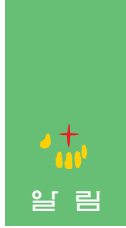
Anna Organ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전경선 안나 010 6409 4809
 “조보 반주자 환영”

파크 골프 채
 최고의 골프기능
 특별할인 기회
 NAVER에서 아리랑파크
 골프채로 검색 선택 후
 010-3599-0745로
 연락주세요.
파크 골프 스포츠
 대표 김요셉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항공, 숙박, 버스 포함 1인 34만 원
오겹살, 회정식 제공 2인 1실
marcus-1.com(마르코성지순례)
010.5150.2625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산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피정 또는 단체 피정(5명 이내)

교육: 교리 교육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교구 성령기도회 일정 안내

일시: 8월 1일(월) 19:00~22:00/

매주 월요일

장소: 중앙동성당

강의 및 미사: 이진호 안토니오 신부
(전국 성령쇄신봉사회 대표 사제)

주제: 성숙한 신앙인

▶찬미, 강의, 치유, 미사, 안수 있습니다.

※창원지구, 진해지역 성령쇄신봉사회를
교구 성령쇄신봉사회로 통합되어, 매주
기도회는 진해 중앙동성당에서 진행됩니다.

로템의집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상담원(사회복지사) 1명

접수: 8월 10일(수) 18:00까지,
전자우편(rothem03@hanmail.net)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로템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문의: 055·292·4747

▶구체적 사항은 로템의집 홈페이지(www.
rothem03.or.kr), 교구 홈페이지(http://
cathms.kr) 채용정보 참조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후원계좌: NH농협은행 301-0293-9000-0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055·249·7121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주방 1명, 시설관리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cecomasan@gmail.com)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 추후 개별 통보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결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요르단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여호 1,10-2,24)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요르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사흘 후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요르단 강 동편 세 지파(르우벤과 가드,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업에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의 아내와 가족만 그 땅에 머물게 하고,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세 번째 준비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처럼, 시팀에서 예리코로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예리코는 그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면 첫 번째로 차지하게 될 성읍입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 3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요르단 강은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의 경계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평원에서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르단 강을 건넌다는 것은 광야 시절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약속의 땅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려는 굳건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요르단 강처럼 일단 그것을 넘어가면 다른 정체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세례 성사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우리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이전과 이후의 정체성은 달라집니다. 사제 서품이나 수도자들의 종신서원도 그러합니다. 그 경계를 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힘에 의존하여 그 현실을 살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 또한 우리가 건너왔던 강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그 강을 건넌 것인지 되돌아봅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두 명의 정탐꾼들은 예리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예리코 성의 성벽에 있는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만큼 예리코 성읍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고가 예리코 임금에게 들어갔고, 임금은 그들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들을 옥상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속에 숨겨 놓고, 그들이 떠나갔다는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라합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그가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신앙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보인 것처럼 그들도 그녀의 집안에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여 라합은 신심깊은 개종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협력자로 선택된 인물은 이방인 창녀였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이들을 통하여 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